

문장은 무엇을 하는가

정우경*

[서평] 손유경(2021), 『삼투하는 문장들: 한국문학의 젠더 지도』, 소명출판, 468쪽

1. 서론

“한국적 특수성은 주어진 세계적 보편성의 내적 충실을 다지기 위해 동원되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개별적 노동(특수한 실천) 속에서 이미 보편적 노동(보편적 실천)을 무의식적으로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문학/예술 ‘그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보편적 개념을 수반하게끔 탐구되어야 했다. 여기서 핵심은 특수자가 무언가를 ‘행한다’는 데 있다.”¹

『삼투하는 문장들』에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010년대를 통과한 16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이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장과 현실의 상호 스며들”(3)이다. 이상의 「12월 12일」을 “서술자 A와 서술자 B의 경합”(342)으로 독해해 낸 글이 잘 보여 주듯, 우리는 하나의 글 안에서도 길항하는 문장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자는 그런 문장들이 현실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들을 걸어낸다. 문장의 수행을 주목하는 렌즈는 수행을 통하여 구성되는 주체와 수행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손유경(2021), 『삼투하는 문장들: 한국문학의 젠더 지도』, 소명출판, p. 209. 이하 괄호 안에 면수 표기.

의 효과를 비추며,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익숙한 질문을 ‘문장은 무엇을 하는가’로 바꾸어 놓는다. 이처럼 문장의 수행에 주목하는 일은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지향점, 이상으로서의 문학이 아닌 현실화된 실천으로서의 글쓰기를 논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문장의 수행에 대한 포착은 ‘글쓰기’라는 행위 자체와 그것을 통해 구성되는 ‘글쓴이’, 곧 ‘글을 쓰는 사람’을 응시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예컨대 지하련-최정희-이선희가 식민지 조선에서 행했던 ‘글쓰기’는 “전위되기의 젠더화된 구조”를 드러내는 “이단적인 모험”(66)이라 할 수 있다. 손유경은 그들의 이단적 ‘글쓰기’를 논의의 중심에 놓으며, 우리로 하여금 지하련-최정희-이선희가 우정과 호승지심을 나누던 순간을 목도하게 한다. 그들의 개인사 자체보다는 개인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서사화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며, “갈등과 경합”(67)의 장이었던 반복적 ‘글쓰기’가 만들어 나간 예술가 정체성과 관계망을 펼쳐 보이는 것이다.

문장의 수행성을 살펴보는 일은 문학을 둘러싼 논의를 폭넓게 살펴보며 문학이 구성되는 과정을 확인하게 하고, 문학을 이야기하기 위해 (재)배치되는 개별 텍스트의 미학을 논하도록 한다. 문학은 그 자체로 유동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문학사의 새로운 가능성」에서 볼 수 있듯, 여전히 한국/현대/문학이라는 학술 장에서 다룰 수 있는 것 내지는 다루어야 하는 게 어떤 텍스트인가에 대한 인식은 일정한 경계 속에 갇히기 쉽다. 저자는 문학 장 내부에 있었던 이들의 글쓰기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동시에, 문학 장을 구성하는 데 기여했던 문학 장 바깥의 학술/문화 운동의 주체와 그들이 남긴 글을 폭넓게, 정교한 서술로 밝힌다.

2. “왜 안 돼?”가 그리는 ‘젠더 지도’

손유경은 이 책의 1부에서 우에노 치즈코의 질문을 적극적으로 빌려

온다. “여자도 남자만큼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약한 게 뭐가 문제지?”²를 묻는 우에노 치즈코의 페미니즘은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고 상호 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의의 초점을 바꾸어 놓는다. “왜 안돼?”는 “왜?”보다 효과적으로 당위에 내포된 전제를 심문하는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왜?”라는 질문에는 무엇이더라도 답할 수 있지만, “왜 안돼?”라는 질문에는 “안 된다”는 제약이 정당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질문을 활용하여 모더니즘이 “심각하지 않으면 어때?”라고 묻는 이선희를(65), “주인공이 아니면 어때?”라고 묻는 김향숙을(131) 길어 낸다.

「사후(事後/死後)의 리얼리즘: 김향숙 소설의 ‘살아남은 딸’을 중심으로」는 김향숙의 소설에서 주인공이 되기를 거부하거나 주인공이 떠난 후에 살아남은 인물들을 주목한다. 김향숙은 일련의 소설을 통하여 “역사의 주인공이 떠난 사후(事後/死後)에도 고통에 찬 관객의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142)을 보여 준다. 그의 소설에서 특히 주목을 요하는 것은 오빠가 떠난 후에도 생기 있게 살아가고자 고군분투하는 딸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아들을 잃고 빛나는 딸의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는 어머니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제 몫으로 주어진 애도의 자리를 떠나간다. 김향숙이 소설화하는 딸들의 내면은 현실과 유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현실의 폭력이 깊이 침투된 그의 내면이 현실과 외따로 존재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그렇게 작가는 “외부 세계와 분리된 ‘자기만의 고유한 내면’이 허락되지 않았”(143)던 딸들의 형상을 통하여 “폭력과 대항 폭력이 닳을 수밖에 없었던 1980년대 현실을 뒤집어 보는 독특한 관점”(142)을 보여 준다.

한편, 「일하는 사람의 ‘아플’ 권리: 1980년대 소설에 나타난 노동자의 질병과 섹슈얼리티」는 1980년대의 노동소설에서 스펙터클이 될 수 없었던 노동자의 몸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글은 일련의 노동소설에서 오

2 나카무라 유지로·우에노 치즈코(2004), 장화경 역, 『인간을 넘어서』, 당대, p. 20.

래 앓아 온 몸을 포착하고, 김향숙의 『겨울의 빛』(1984)에서 ‘너’의 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취약한 몸을 발견해 낸다. 지난한 일상을 이루고 있는 이 몸들은 왜 노동소설의 전형이 될 수 없었는가. 이러한 질문을 경유하여 인간의 근원적 취약성을 억압하거나 은폐해 왔던 일련의 노동문학을 훑아 보는 작업을 통해 우리는 상호 돌봄이 현실화되는 세계로 한 걸음 나아간다.

이처럼 논의의 틀거리를 바꾸어 놓는 질문은 ‘한국문학의 젠더 지도’를 그리는 데 주요한 출발점이 된다. 예컨대, ‘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되지?’ 혹은 ‘왜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하지?’와 같은 물음은 재생산을 강제하거나 억압하는 이데올로기의 밑바탕이 되는 전제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게끔 한다. 역사적으로 재생산은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치부되며 은폐되거나 공공선이라는 명목하에 통제되어 왔다.³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재생산 없는 ‘고향’의 유토피아: 이기영의 『고향』론」이다. 『고향』(1933~1934)에서 여성 인물은 자연에 유비되고, 이에 따라 생산이 강조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생산의 기반이 되는 재생산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취급되며 특기되지 못한다. 그리고 서사가 전개됨에 따라 여성 인물들은 여공으로 거듭나며 재생산으로부터 멀어진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그들이 섹슈얼리티와 출산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했는지, 왜 생산하는 몸과 낳고 기르는 몸이 한 몸이어서는 안 되는지, 그와 같은 명료한 구분에 전제되어 있는 생산과 재생산의 경계가 생산을 지속하게 하는 기반인 재생산의 영역을 비가시화하는 것은 아닌지를 물을 수 있다.

「잔해(殘骸)의 목격: 최정희의 『인간사』론」이 논하고 있듯, 재생산과 관

3 일레로 프란시스 빌은 비백인 여성들의 불임화를 촉진시킨 미국의 ‘산아 제한’ 캠페인을 현대의 가장 교묘한 억압 행위로 꼽은 바 있다. 이 캠페인은 비백인 저개발지역과 미국의 흑인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으며, 푸에르토리코에서 불임 시술은 단지 ‘수술’이라는 말로 통용될 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빌은 흑인 여성들에게 언제, 몇 명이나, 몇 살 터울로 아이를 가지는 것이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지 결정할 수 있는 양도불가능한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힘주어 말한다[프란시스 빌(1979), 이옥경 역, 「미국 흑인 여성의 질곡」,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작과비평사, pp. 143-146 참고].

련된 당위에 대한 질문은 『인간사』(1960~1964)의 서사를 추동하는 의미심장한 인물인 마채희를 독해하는 데도 필요하다. ‘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되지?’라는 질문을 통해 거듭되는 마채희의 재생산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성으로 치부하지 않을 때에야 아이들의 탄생을 희망으로 손쉽게 치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처에 만연한 죽음과 공존하는 출산은 이 세계에 누구의 삶이 출현하였느냐보다 이 세계에서 누구의 삶이 바스라지고 있는냐를 주목하게 하며, 태아가 아닌 한 여성의 몸을 비춘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잔해로만 남은 마채희와 더불어 최정희가 목격한 1960년대의 대한민국을 발견하게 된다.

3. ‘농’을 ‘참’으로 만드는 문장들

우리는 아이를 화자로 내세운 산업화 시대의 소설들에서 감각할 수 없음을 통하여 감각되는 생생한 폭력이라는 역설을 발견할 수 있다. 「유년의 기억과 각성의 순간: 산업화시대 ‘성장’ ‘서사’의 무의식」은 윤홍길의 「황혼의 집」(1970), 황석영의 「잡초」(1973), 오정희의 「유년의 뜰」(1980)에 주목한다. 이 글은 전쟁으로 인해 무감해진 ‘진짜’에 대한 감각을 놀이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발견한다. 아이들은 그들을 그려 내고 있는 어른 작가의 억압된 타자이자 분신인바, 우리는 아이 화자의 모습을 경유하여 작가들이 수행하는 ‘리얼리티’의 모색과 그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모색은 이른바 ‘객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사하기 위한 노력과는 다른 것인데, 새롭게 구성되는 ‘리얼리티’가 글쓴이의 현실을 바꾸어 낼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놀이하는 유년의 기억-이미지”는 “산업화시대의 ‘나-어른’에게 다른 삶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고, 그들이 “글쓰기라는 ‘놀이’를 즐김으로써 성장신화의 속박에서 벗어”(109)나도록 한다.

이처럼 어떤 문장은 현실을 감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냄으로써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을 재구성한다. 일상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일상은 전쟁터였다는 ‘사실’, “깨어질 안정이 애초에 없는 무너진 삶의 기반을 생존 조건으로 삼고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일상”(156)을 경유해야만 이야기할 수 있는 ‘현실’의 면면이 있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글이 「젠더화된 세대교체 서사를 패러디하기」다. 이 글은 형제들의 ‘부친 살해’ 신화로는 좀처럼 설명되지 않는 부녀 관계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한국 문학사·비평사에서 익숙한 부자의 형상은 다음과 같다. 아들은 부재하는 아버지를 찾거나 신화 속 아버지를 살해하며 아버지의 자리를 쟁취하고자 한다. 이때, 아버지는 그의 권력을 욕망하는 아들에 의해서 실재보다 더욱 거대한 모습으로 상상된다. 반면, 딸들의 아버지는 남루한 모습으로 실재한다. 가부장제 질서 아래 딸들이 겪어 온 일상의 전쟁은 그들이 아버지의 실재하는 ‘몸’을 응시하도록, 그리고 그 실재를 환상을 통해 재구성하도록 추동한다.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을 기억하는 딸들은 현전하는 아버지를 응시하며 분노와 살의를 드러내 보인다. 아버지의 자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닌 폭력과 “박탈의 경험”(182)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딸들에게 있어 ‘부친 살해’는 “신화이기를 멈추고 명확히 존재하는 내적 진실”(182)이 된다. 이처럼 어떤 ‘진실’은 “문학적 상상력”(357)을 통해 발견되며, 그러한 ‘진실’은 새로운 세계를 현실화하는 데 보탬이 된다. “문학적 상상력”은 파토스를 기반으로 한다는 「김우창 초기 비평의 ‘미니마 모달리아」의 논의는, 딸들이 “가상의 세계”(181)인 소설 속에서 실현하고 있었던 ‘부친 살해’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된다. 축적된 “초세대적 분노”(182)를 기반으로 딸들은 더 먼 곳을 상상하고, 그 세계로 나아간다.

이처럼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이 아닌 나중, 이곳이 아닌 저곳과 접속하는 통로를 작가 자신과 독자에게 동시에 선사”(4)하는 문장들이다. 그는 예술이 세계를 바꾸는 이들의 의식과 충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마르쿠제의 말(357)을 환기하는 문장들에 주목한다. 이를테면 저자는 김우창에게서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356)이 아닌, “‘적어도’

무엇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최소한의 윤리”(353)를 읽어 낸다. 이 “최소한의 윤리”는 “궁핍한 현실을 쉽사리 이상화하거나 합리화하지는 않 게끔”(354) 하는 윤리로,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나 중”과 “저곳”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조건」 역시 이러한 ‘최소한의 윤리’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글이 다. 이 글은 1990년대를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인한 절망으로 가득 찬 시대가 아닌 ‘또문’이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포스트모던 전략’에 따라 새로운 글쓰 기를 시도”(304)했던 시대로 입체화하며, 고정희의 장례식을 둘러싼 풍경을 보여 주는 김은실의 글에서 포스트모던한 글쓰기의 수행을 발견해 내는 것 을 가능하게 한다.

「혁명과 문장: 최인훈의 『화두』론」은 “나중”과 “저곳”에 대한 상상을 포기하지 않는 문장이 빚어내는 세계를 잘 보여 준다. 이 글을 관통하는 것 은 저자가 「낙동강」으로부터 길어 낸 “농이 참 된다”(385)는 말이다. 주술 과 같은 이 말은 “텍스트와 그 작중 인물, 그리고 작자인 조명희의 운명까 지를 암시”(385)하고, 나아가 조명희의 명문(名文)을 읽고 자란 소년의 운명 에도 영향을 미친다. “조명희의 생애와 문학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동”을 “원동력”(372)으로 하여 창작된 작품 『화두』(1994)의 주인공은 “이태준의 후 예”(373)라 할 수 있는 심미주의자다. 저자가 사사키 아타루를 원용하며 논 하였듯, 주인공에게 레닌은 “마르크스·엥겔스의 책을 읽고 쓰고 번역하고 설교하고 논쟁한 언어의 사람”(380)이었고, 수많은 러시아 혁명가들이 일으 킨 혁명의 본질은 문학에 있었다. 주인공에게 있어 명문은 “현실이 아닌 미 래”(377)의 시간과 관계 맺는 문장으로, “과거나 현재를 합리화하는” 문장 이 아닌 “예언적인, ‘보이지 않는 힘’이 흐르”(378)는 문장이다. 그러한 명문 을 대표하는 조명희의 문장은 그 문장을 써 낸 작가 조명희를 소련으로 향 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문장은 조명희의 글을 읽고 감상문을 썼던 주인공 에게까지 가닿으며, 소년이 “자신이 쓴 문장의 힘에 ‘씩운’”(379) 채 자라나 작가가 되도록 한다.

「‘말나라’의 시민 되기: 리영희와 최인훈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이러한 최인훈의 문학적 상상력이 그의 “코스모폴리탄적 독서”(412)에 기인했음을 포착하며, 최인훈과 리영희를 한데 묶어 사유한다. 리영희는 베트남 전쟁에 내포된 미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밝히고자 분투했던 언론인 이자, 서구의 자본주의도 러시아의 관료주의도 아닌 “대안적 세계의 가능성”(406)을 찾던 지식인이었다.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는 일이 반체제적인 좌익 행위로 여겨지기 십상이었던 시대에, 리영희의 글쓰기는 사람들이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리영희의 상상력 역시 그의 왕성한 코스모폴리탄적 독서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연결 짓는”다는 특성을 공유하는 실천적인 행위였던 최인훈과 리영희의 코스모폴리탄적 독서와 글쓰기는 그들 자신을 “민족주의의 논리에서 해방시키는 원동력”(417)으로 작동했다.

4. 문장이 가닿는 낯선 곳들

그런데 글을 쓰는 행위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를테면 글쓰기는 때때로 아이러니하게도 글쓰기를 통하여 벗어나고자 했던 바로 그 지점을 선명하게 비추어 낸다. 비평과 이론을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책의 2부를 살펴보자. 「백낙청의 민족문학론을 통해 본 1970년대식 진보의 한 양상」과 「현장과 육체: 『창작과비평』의 민중지향성 분석」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설명하는 틀로 작동해 왔던 민족·민중문학론의 지향과 그 도달점을 밝히는 글이다. 손유경은 백낙청과 그가 참조했던 리비스를 유비관계에 놓으며, 자신을 리비스와 같은 자리 혹은 그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시키고자 했던 백낙청과 『창비』 필진들의 의식 구조에 주목한다. 이들이 구성해 내는 민족 문학의 주된 성격은 다름 아닌 토속성이며, 이는

“분뇨가 내뿜는 악취나 땀내”(205)로 구체화된다.

저자가 예리한 시선으로 포착해 내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익히 아는 서구 문학보다 더 뛰어난 한국 문학이라는 도식을 증명해 내기 위하여 토속성을 발견하고 그것에 특수한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이다. 이러한 상승 욕망은 민족문학론의 ‘기원’이었던 백낙청의 것만은 아닌데, 세계 문학으로 표상되는 서구 문학에 그 서구 문학보다 더 뛰어난 보편성으로 합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당대의 여러 비평가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후진국이라는 조건이 ‘오히려’ 좋은 문학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역설했던 김현 역시 그와 유사한 욕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책에 따르면 ‘또문’은 “기성 학계와 문단의 ‘주류 콤플렉스’를 가시화하고 문제시하는 글쓰기 실천을 수행”(306)한 바 있다. 그렇다면 “주변부의 인식론적 특권”(293)을 역설한 조한혜정의 논의는 상술한 비평가들의 욕망을 살펴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변부’의 관점이 만들어 내는 정치성을 강조했던 조한혜정은 주변인을 ① ‘중심’의 언어에 충실한 ‘주변인’ ② ‘주변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주변인’ ③ 절대적으로 타자화된 ‘주변인’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그는 하당의 말을 빌려 오며 ②의 ‘주변인’이 자신의 결핍을 보충하지 않은 채 경계에 섬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를 강조한다.⁴ 이러한 분류를 당대 비평가들을 비추는 렌즈로 활용해 본다면, 자신의 결핍을 적극적으로 자원화하며 더욱더 중심에 가 닿고자 했던 이들의 모습은 ‘중심’의 언어에 충실한 ‘주변인’의 초상에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세계에 속하기를 열망했으나, “코스모폴리탄적 가치까지를 포함하는 그 모든 가치”를 “부단히 상대화하는 어떤 정신”(422)일지 모르는 코스모폴리타니즘과는 점점 더 멀어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비평가들의 욕

4 조한혜정(1999), 「사회 운동의 주체에 대하여 2: ‘주변성’의 힘이 지닌 힘과 ‘다름’의 정치학」, 『내가 살고 싶은 세상』(또 하나의 문화 10), p. 275.

망에 대한 응시는 오늘날의 비평 및 문학 연구를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상술한 비평가의 욕망은 결코 낮설거나 특수하지 않다. 요컨대 그들이 천착했던 한국적 특수성뿐 아니라 한국적 특수성을 논하고자 했던 그들의 나르시시즘마저도 특수하지 않은데, 그것이 ‘타자화’된 이들을 적극적으로, 새롭게 의미화하고자 하는 글쓰기에서 쉽게 맞닥뜨릴 수 있는 곤경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상대화하는 일상의 실천을 통하여 권위주의·획일주의 문화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했던 ‘또문’의 목소리는 더욱더 큰 울림을 갖게 된다.

한편, 3세계 지식인의 콤플렉스로부터 기인하는 목적 의식에 대한 응시는 『창비』의 민중지향성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 저자는 『창비』의 민중지향성이라는 말에 “감추어진 비평가의 시선과 욕망을 분석”(216)하며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삶의 현장이 곧 진실인 상황”(228)을 전제했던 백낙청을 비롯하여 『창비』의 민중문학론자들은 역사학자들이 발굴해 낸 ‘민중’이라는 말에 적합한 몸을 “비루하고 너절한 삶의 현장”(227)에서 찾았다. 요컨대 그들은 이문구, 방영웅과 같은 작가들의 소설이 그려낸 “불결한 육체, 풍성한 사투리, 다듬어지지 않은 제스처, 코를 찌르는 악취”(229)와 더불어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물리적·언어적 학대와 폭력, 그리고 강간”(229)으로부터 민중의 형상을 찾아내고자 했다.

손유경은 이러한 세계에서 그들이 발견해 낸 “원초적 생명력”과 “고도의 윤리의식”이 “지식인의 자기 구원에의 욕망”(230)에 다르지 않음을 밝힌다. 그들이 ‘민중지향성’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지향하였던 것은 결국 “민중이라는 용어가 환기하는 어떤 분위기”를 『창비』의 “발간과 유통 과정에 투사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저자는 이 글을 통하여 “『창비』의 민중문학론자들이 정말 ‘몰랐던’ 것은 민중이 아니라 자기 자신, 조금 더 정확히는 자신들의 위치(성)이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235)라는 경청할 만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처럼 민중문학론자들의 민중지향성은 그들 자신도 ‘모르게’ 민중

의 몸과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회귀하는 궤적을 그려 냈고, ‘삶의 현장’과는 더욱 멀어져 갔다. 우리는 위의 질문을 다음의 통찰과 겹쳐 볼 수도 있다.

“연구 대상과의 객관적 거리는 물리적 시간의 흐름으로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상 텍스트의 문제성과 현재성을 깨달은 연구자가 방법론적으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취하는 어떤 이론적 입장에 의해 가까스로 확보되는 것이다. 작가가 죽었다고 학위논문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도 모르는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연구자는 논문을 쓴다.”

(321-322)

문장에는 그 문장을 써낸 사람도 알지 못했던 ‘진실’이 담겨 있다. 반복적으로 읽히고 또 쓰이며, 그리고 다른 문장들과 만나며 문장은 새로운 효과를 산출해 낼 것이다. 그렇게 문장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낯선 곳들에 가닿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유일한 ‘사실’을 매 순간 인정하는 일이 아닐까.⁵ 요컨대, 우리는 진실을 포착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이 문장이 무엇을 수행하고 어디에 가 닿을지 모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삼투하는 문장들』의 문장론은 이 책이 다루고 있는 텍스트들을 넘어 이 책 자체,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써낸 문장들까지를 긴장 속에서 사유하도록 만든다. 이 사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만들어 낸, 그리고 만들어 낼 문장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게 한다. 새로운 문장들은 그 헤아림과 더불어 쓰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농’을 ‘참’으로 만드는 문장들을, 그리고 ‘참’을 ‘농’으로 만드는 문장들과 ‘참’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분투하는 문장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책을 구성하는 글

5 룰루 밀러(2022), 정지인 역,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곶출판, p. 264.

쓰기를 직시하는 문장들, “말(농)이 현실화하는(참 되는) 과정”(5)을 반복적으로 논하는 문장들의 힘이다.

참고문헌

- 나카무라 유지로·우에노 치즈코(2004), 장화경 역, 『인간을 넘어서』, 당대.
 룰루 밀러(2022), 정지인 역,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곰출판.
 손유경(2021), 『삼투하는 문장들: 한국문학의 젠더 지도』, 소명출판.
 조혜정(1999), 「사회 운동의 주체에 대하여 2: '주변성'의 힘이 지닌 힘과 '다름'의 정치학」, 『내가 살고 싶은 세상』(또 하나의 문화 10).
 프란시스 빌(1979), 이옥경 역, 「미국 흑인여성의 질곡」,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작과비평사.